

세계 유일 국제무형유산상 시상식 열려

국내외 무형유산 전문가 100여명 참석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시상식 개최... 단체 2개·개인 1명 수상

전주시가 세계 무형유산의 보호·전승에 앞장선 공로자들을 선정하는 '2024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전주시는 25일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윤순호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국내외 무형유산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단체 2개와 개인 1명을 시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남관우 시의회의장의 환영사, 윤순호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장과 김지성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올해 심사를 맡은 무형유산 전문가인 길라드 주커먼(Ghil'ad Zuckermann)교수, 아마레스왈 갈라(Amareswar Galla) 교수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길라드 주커먼 심사위원장의 심사평을 끝으로 시상과 수상자의 수상소감이 이어졌다.

올해 국제 공모에 응모한 33개국 45개 팀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콜롬비아의 피라-파라나강 원주민 전통협회(Association of Captains and Traditional



전주시는 25일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윤순호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국내외 무형유산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단체 2개와 개인 1명을 시상했다.

Indigenous Authorities of the Pirá-Paraná In River, ACAIPI) △코르디부아르의 남부 만데 코블레 재단(The Foundation of Koble Mande Sud) △아제르바이잔의 로야 타기예바 박사(Dr. Roya Taghiyeva)가 전쟁·내전·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무형유산 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선정된 △콜롬비아의 피라-파라나강 원주민 전통협회는 전통 지식을 문서화하고 젊은 세대와 함께하기 위한 자체 학습모델을 제작하는 등에 노력을 인정받았고 △코르디부아르의 남부

만데 코블레 재단은 지역 페레이드를 홍보하고 전통춤의 명맥을 이어가며 타민족과의 교류를 촉진해 무형유산이 일상의 관계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이들 대상 수상자에게는 전복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옷질장 이의식 보유자가 제작한 상패와 함께 각각 1만 달러 씩 총 3만 달러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와 관련,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49명의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주시가 세계

각국에서 무형유산을 보호·발전시키는 데 앞장선 개인 또는 단체를 시상하기 위해 제정한 세계 유일의 국제 무형유산상으로, 올해로 6회를 맞았다.

콜롬비아의 수상자 ACAIPI의 파비오 발렌시아 바네가스(Fabio Valencia Vanegas) 대표는 "전주시의 인류 무형유산 보호와 보존에 기여하는 활동에 감사한다"면서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무형유산 종사자들에게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 후백제와 조선을 잇는 천년고도 전주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49명의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국제무형유산대상이 전주의 소중한 무형유산자원과 세계의 무형유산과의 거리를 초월한 소통·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CICSinKOREA(www.youtube.com/@CICSinKorea)을 통해 현장 중계된 시상식은 2020년도 전주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49명의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국제무형유산대상이 전주의 소중한 무형유산자원과 세계의 무형유산과의 거리를 초월한 소통·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CICSinKOREA(www.youtube.com/@CICSinKorea)을 통해 현장 중계된 시상식은 2020년도 전주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49명의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국제무형유산대상이 전주의 소중한 무형유산자원과 세계의 무형유산과의 거리를 초월한 소통·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CICSinKOREA(www.youtube.com/@CICSinKorea)을 통해 현장 중계된 시상식은 2020년도 전주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49명의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국제무형유산대상이 전주의 소중한 무형유산자원과 세계의 무형유산과의 거리를 초월한 소통·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광두레 확산 위한 영호남 협약식

관광두레 전주시역 협의회,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 조성키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의 관광 활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주시역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들이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를 만들기로 했다.

관광두레 전주시역 협의회 지난 24일 전주시 중앙동 위드스페이스에서 전주시역 6개 관광두레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 관광두레 현관식'을 열고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 전주시역 협의회는 이날 부산의 로컬허브 공간 대니얼스 박동엽 대표, 스타트허브 김현승 대표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관광두레 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선정, 지원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자생적인 관광 사업체를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전주의 관광두레는 그림그림(주), 착한공작소협동조합, 문화살롱(주), (주)전주맛, 튼(주) 등 기존에 선정된 곳에 지난 8월 (주)전라감염이 선정되면서 모두 6곳으로 늘었다.



(주)전라감염은 전주의 전통술을 기반으로 한 관광 체험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업체로,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술 문화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주의 역사가 담긴 우리술 문화와 관련된 지식을 전파하고, 관광객들이 지역의 문화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전주시 관광두레의 선정과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전북관광두레 박용남 PD는 "전주시 관광 활성화의 큰 축을 전주시 관광두레 사업체가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규 사업체의 참여가 지역 관광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최인경 전문위원은 "전주시의 전통과 문화 특색에 기반을 둔 전주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는 지역의 고유성 및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민사업체의 사업성 및 자립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영동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전주시 기획조정실·영동군 행정관광복지국 직원들 기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와 충청북도 영동군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전주시 기획조정실과 영동군 행정관광복지국의 직원들이 자발

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와 양도시의 상생발전을 응원하며 고향사랑기부금 250만 원을 상호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상호기부에 참여한 전주시 직원A 씨는 "이번 기부를 통해 평소 애용하던 지역인 영동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와 특색있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매년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할 예정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상호기부에 참여해주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면서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두 지역의 협력과 우정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되며, 고향사랑금을 누리집 또는 전국 NH농협은행 창구에서 참여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미식회' 내달 12~13일 한벽문화관서 개최

전주시는 10월 12~13일 양일간 전주한벽문화관 화명원에서 '2024 전주미식회'를 열어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한바탕 잔치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주미식회는 전주 양반가의 전통혼례에 실제 하객이 돼 전주 혼례 문화를 체험하고 고급스러운 혼례음식을 한상차림으로 제공받아 전주 음식문화의 특별함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록 꾸며진다.

이를 위해 전주미식회에서는 전통혼례 시연과 전식-분식-후식으로 이뤄진 전주음식 한상차림 체험, 조선판 공연 관람 등 다양한 전주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미식 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전주음식 한상차림은 전주의 대표 식재료로 만들어진 메뉴로, 전식은 전주이강주와 편강, 분식은 흥시죽

/갈비탕/떡갈비/삼색전/잡채 등으로 화려하게 구성되었고, 후식은 국화차와 약과 그리고 배정과가 제공될 예정이다. 최근 트렌드에 맞춰 채식 메뉴도 준비되어 있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024 전주미식회'의 입장권은 내국인의 경우 10월 3일까지 티켓링크를 통해 구매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는 크리에이티브를 통해 구매 가능하다. 입장권은 2만 원으로 1인 2매까지 구매 가능하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덕진구, 집중호우 대비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현장 점검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한병삼)는 25일 기상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약도로에 설치된 아래차로 자동차단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덕진구는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했던 도로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했으며, 이날 현장 방문은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집중호우 시 예견되는 사고를 예방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덕진구는 올해 관내 아래차로 4개소(하리교, 회포대교, 전주천교, 추천대교)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 시 신속한 차량 통제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방할 수 있도록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한병삼 덕진구청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아래차로 자동차단시설 및 취약도로 배수 시스템을 면밀히 살펴보고, 집중호우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꼼꼼한 사전예찰로 자연 재해를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www.khnp.co.kr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수원, 대한민국 물에 별 그리다!

대한민국을 밝히는 깨끗한 수력 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이 함께합니다

한수원본부 청평양수, 양양양수, 예천양수, 용성양수, 무주양수, 상평전양수, 신항양수

무주양수발전소는 무공해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로 전력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이 뭐? 수력발전의 일종으로 심야전력을 이용하여 위치가 낮은 하부저수지의 물을 위치가 높은 상부저수지로 끌어 올려 저장하였다가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에 저장된 물을 하부저수지로 낙하시켜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양수발전은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주파수 조절 및 정격전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무주양수홍보관 관람정보

- ▶ 개관시간 : 주중 09:00 ~ 17:00(입장료 및 주차료 무료)
- ▶ 휴 관 일 : 주말 · 공휴일 · 신정 · 설연휴 · 추석연휴 · 기타 회사 기념일 및 지정일
- ▶ 관람신청
 - 전화문의 : 070-4000-2141, 2144 · (063)324-3665 / FAX : 0502-734-0543
 - 인터넷신청 : www.khnp.co.kr/한수원 방문신청 / SMS인증 / 무주양수 전시관
- ▶ 주 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로 788 「무주양수홍보관」